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어떻게 돼가나

광주시·전남도 입장차 수년째 ‘헛바퀴’

감사원 “광주공항 폐쇄 전제 무안공항 개항”

공군비행장 이전도 지역민 반발로 제자리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이 전 문제가 광주시와 전남도 간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17일 국토해양부에 두 공항의 통합 운영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통보는 무안공항 개항으로 인해 광주공항마저 적자노선으로 전환하는 등 두 공항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도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가 커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개항 전제는 광주공항 폐쇄=감사원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분리 운영때문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4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을 자세히 재검토해 무안공항 개항시기를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해 7월 교통개발연구원에 재검토를 의뢰했다.

연구원은 당시 접근 거리가 30분밖에 되지 않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모두 운영할 만큼 수요가 많지 않고, 이를 병행 운영할 경우 연간 30억원 이상의 공항 운영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한국공항공사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국내선과 국제선을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용역을 벌였으며,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무안공항을 개항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 전남도 ‘뺑뺑’=감사원이 무안공항 개항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힌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은 수년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커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애초 지난해 5월28일 광주~무안국제공항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내선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무안국제공항 이름을 광주 무안국제공항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무안

■ 광주·무안 공항 운영 편수 (단위:편)

	2006	2007	2008
광주	13,558	12,700	11,166
무안	0	224	1,841

■ 광주·무안공항 여객수 (단위:천명)

	2006	2007	2008
광주	1,630	1,539	1,381
무안	0	15	130

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나 무안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공항 명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광주시는 다시 KTX 안전개통을 국내선 이전의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해양부 측에 호남고속철이 완전히 개통되는 2014년 이후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이전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공항 이전 문제는 ‘해답’ 없이 해를 거듭하면서 두 공항 모두 ‘적자 공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광주, 무안공항 손실 얼마나 되나? =감사원 감사결과 연 14만 회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춘 무안공항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선 1일 1회, 국제선 주 10회만 운항하는 등 작년 총 1천841편의 항공기가 운항했다. 이는 무안공항 항공

기 이착륙 처리능력의 고작 1.3%에 불과한 실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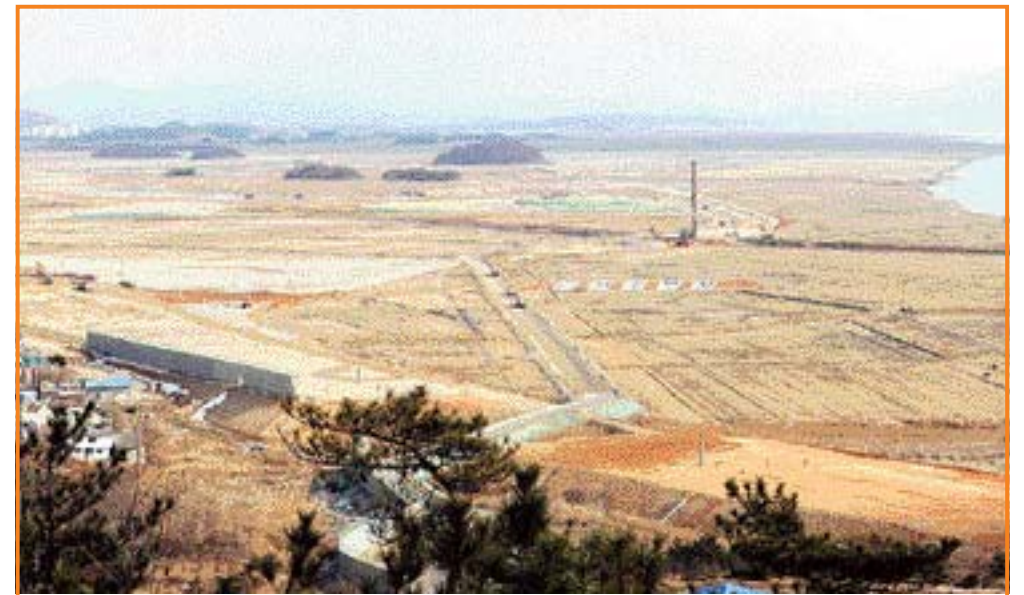
이로 인해 개항 첫해인 ▲2007년 12억 4천800만원 ▲2008년 71억3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무안공항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면세점이 철수하고, 대내외적 여건 때문에 중국 북경과 상해 등 국제선 노선도 잠정 중단되는 등 무안공항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광주공항은 2004~2007년 연평균 5억 6천600만원의 이익을 냈지만, 무안공항 개항 이후 국제선 이전으로 인해 지난해 11억6천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모두 운영할 경우 두 공항 모두 손실을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군 공항 이전도 ‘뜨거운 감자’=광주공항 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도 지역간 입장차이로 수 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공군비행장 이전시 최적지라는 국방부의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무안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혀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국방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광주와 전남, 무안 등의 지자체가 합의해 이전을 요구하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년 10월 개막하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앞두고 영암군 삼호면에서 경주장 건설 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경주장의 현재 공정률은 55%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암 코리아 F1 경주장 세계적 ‘꿈의 무대’ 될 것”

獨 설계사 엔지니어들 공사현장 찾아

“코리아 포뮬러원(F1) 경주장은 F1 드라이버의 능력을 최고로 끌어올려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F1 드라이빙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내년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경주장을 설계한 독일 팀케(Tilke)사 수석 엔지니어들이 17일 오전 경주장 공사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현재 공정률 55%에 이르는 코리아 서킷 공정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F1 참가팀이나 드라이버, 관람객 모두에게 ‘꿈의 무대’가 될 것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명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팀케사의 토목분야 선임매니저인 프랭크 보스(Frank Both) 씨는 “코리아 서킷 공사의 핵심은 토층이 부드러워 연약지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 문제가 손조롭게 해결됐다”면서 “내년 7월까지 공기를 마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 F1 경주장 가운데 가장 긴 트랙(5.615km)을 가졌고, 보기 드문 1.2km의 장거리 직선구간과 다이내믹한 중고속 코너가 적절히 배치돼 경주차와 드라이버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서킷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빗물 배관분야 엔지니어인 롤란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씨는 노면 접지력을 높이기 위한 아스팔트 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속 300km가 넘는 차들이 주행하는 만큼 빗물을 빨리 흡수하고 노면의 접지력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주장을 위한 특별설계와 가장 적절한 아스팔트 배합을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세계적인 F1 경주장 전문·설계 감독 회사인 독일 팀케(Tilke)사의 기술진들이 17일 영암 F1 경주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설명했다. 팀케사는 올해 F1 시즌이 열리는 전 세계 17개 경주장 가운데 8개 서킷을 직접 디자인했을 정도로 F1 경주장 건설 분야에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 세팡과 중국 상하이, 터키 이스탄불, 바레인 사키르, 싱가포르, 아부다비 아스 아일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최근 새로 지어진 모든 F1 경주장 건설에 참여했으며 독일 누르부르크링, 호켄하이름 등 유서깊은 서킷의 개·보수작업도 하고 있다.

F1 대회 운영법인 카보(KAVO)가 F1대회 유치를 확정하면서 팀케사가 곧바로 경주장에 대한 밀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동서양의 문명이 조화를 이룬 독창적 구조와 디자인으로 경주장을 설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역 제품 서로 사 줘시다” 기아차·금호타이어 노조 등 협의체 결성



기아차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광주은행, 보해양조 등 4개 노조 간부들이 17일 협의체 결성식을 마친후 지역기업 돕기에 나서겠다고 손을 맞잡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지역 대기업 노조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생산 제품의 애용과 소비 확대에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금호타이어지회, 전국금속산업노조 광주은행지부, 전국식품산업연맹 보해양조 노조 등 4개 노조는 17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1층에서 ‘지역기업 서로 돕기 노조 협의체’를 결성했다.

노조 협의체는 결성식을 가진후 상호 제품 사주기운동 차원에서 보해측이 기아차 로체를 구매했으며 광주은행에 임직원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광주은행도 본점 1층 로비에 기아차 쏘울을 전시했으며 금호타이어 제품과

보해 소주 등도 전시하기로 했다.

노조 협의체는 앞으로 기업체 상호 간 상품 애용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각 사 노조별로 해왔던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협의체 노조와 연대해 추진하고 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은행 노조 이경희 부위원장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소속은 다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 운동이 여러 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영산강은 전라도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매년 100만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수질이 악화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아름다운 자연환경: 도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아름다운 자연환경: 도시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산강살리기추진위원회